

2023년 전국학생신앙운동 주력운동 빛으로-날마다주님과 운동 취지문

SFC강령에 찬동하는 전국의 학생신앙운동원 여러분. 2023년 전국학생신앙운동의 주제는 '빛으로 세상으로(마 5:16)'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학생신앙운동에 속한 모든 운동원이 동참할 운동을 펼쳐내고자 합니다. 바로 빛으로-날(마다)주(님과) 운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LORD)이신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SFC의 모토 중 하나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위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이 시대와 우리 세대를 잠깐 돌아봅시다.

이 시대는 말씀을 접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으며 설교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어버린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 추구하는 바가 명확한 시대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성실하게 찾고 구하며 실행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와는 거리가 먼 세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깨어짐과 갈라짐이 만연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성실하다는 SFC 운동원인 우리조차 때때로는 위와 같은 모습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명확합니다.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대교리문답 154)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은혜의 방편이 풍성한 자리는 바로 주일 공적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선포 즉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쓰십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을 받아 날마다 상고(행 17:11)하며, 또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묵상합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과 계획이 약속하신대로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주기도문)하며, 또한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딤후 4:5)집시다. 이미 거룩해진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질 그 날 까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학생신앙운동원들이여, 세상 속에서 빛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실천하며

우리의 지금 신분은 학생이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눅 9:2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매일매일 날마다 나 자신은 죽고(고전 15:31)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코로나시대청소년SFC리포트』, 서울: SFC, 221). 주일 공적 예배로부터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생활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각자 홀로 그리고 함께 운동합니다. 대교리문답 156문답에서는 우리는 각자 홀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SFC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감사를 나눕시다.

SFC with BTS

모든 SFC 운동에서 BTS가 함께(제48회전국SFC대학생대회, 오전경건회 '성령의 사람' 권해생교수) 갈 것입니다. 바로 By The Spirit,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 할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셔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헬퍼(Helper)로 함께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하여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즐겁히 그리고 신속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며 감사를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기도, 감사를 통하여 날마다주님과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함께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 말씀 앞에 복종시킵시다. 습관을 들여 매일매일 평생의 삶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6:23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시편 145:2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Every day, for Ever and Ever with the LORD